

정치권,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일 총 공세

權 대사 6자회담서 대일협력 변화 시사

여야 독도 지키기 특별법 발의

독도특위 日 항의방문...어업협정 파기 주장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정치권이 대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독도의 법적 영유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가 하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독도 특위는 조만간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대마도 역사 연구를 구성하는가 하면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은 17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 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하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산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대마도 역사연구회'가칭)를 발족, 맞불 작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허태열, 김정훈 등 10명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마도 역사연구회를 만들어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여부를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가 49.5km로 일본 후쿠오카(134km)보다 훨씬 가깝고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도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로 나와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다음 공석 발족한 뒤 지리분과, 역사분과, 국제법분과 등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7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과 관련,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EEZ(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독도 수호와 역사외교 대책 특위'는 위원장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을 내정하고 조만간 일본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한 조당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권철현 주일대사는 17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조치에 항의해 일시국거한 권 대사는 이날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국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동반자적 협력에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이 터져나왔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6자회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4개 한인회(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북버지니아한인회,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 메릴랜드한인회) 회원들이 16일 오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생태계 주권' 대책 전방위 추진

환경부, 생태계 모니터링·바다사자 복원 사업 본격화

독도에 대해 매년 서너 차례의 생태계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바다사자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독도 생태계 보전대책이 폭넓게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독도는 조그만 섬이지만 육지와 달리 떨어져 있어 독특하고 고유한 생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철새 이동통로에 위치해 새들에게 쉼터이자 보금자리 구실을 한다"며 "독도의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생태계 정밀조사와 외부 유입종 조사, 바다사자 복원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독도에서 새로운 서식종이 계속 관찰됨에 따라 2014년까지 생태계 모니터링을 해마다 3~4차례로 늘리고 5년마다 4개월 정밀조사를 실시해 자연 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또 1970년대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가생동물 1급인 바다사자의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도 추진하고 외부 유입종이 독도 고유종에 미치는 영향도 심층 연구할 방침이다. 특히 바다사자 복원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주변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중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심 사업이라고 환경부는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 바다사자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현황을 조사하고 동해,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 모습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은 영문 화보집(Dokdo, the Treasure of the East Sea) 8만5천부를 만들어 국내 외에 배포하기로 했다.

화보집에는 독도의 전란적 현황과 한반도 바위 등 자연 경관, 갯벌, 갯벌, 섬자갈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소개된다. 독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0년 9월 특검 1호로 지정됐고 2005~2006년 4개월 자연생태계 정밀조사에서 107종의 조류와 49종의 식물, 93종의 곤충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1급인 매, 2급인 벌레, 올빼미, 솔개, 뽕소라,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와 갯벌매기 1만여 마리, 바다제비 6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연합뉴스

美 워싱턴서도 日 영유권 주장 규탄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의 4개 한인회(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북버지니아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메릴랜드한인회)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 한인회는 성명서에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도발적인 주장과 행동은 역대 일본정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 제기되는 것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불 배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며 일본의 반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국내영교육학) featuring 'Summer Vacation Basic Problem Solving Class'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and '7/4 Opening' (개강 7월 4일).

Advertisement for 'All-Korean' (전공국어) classes, including '7/5 Opening' (개강 7월 5일) and '7/7 Opening' (개강 7월 7일).

Advertisement for 'Immersion English Education' (영어몰입교육과정) with '6/18, 2/22 Opening' (개강 6월 18일, 2월 22일).

Advertisement for 'Dong-A Foreign Language Academy' (동아외국어학원) with 'Breakthrough! Foreign Language Study!' (파격! 破格! 외국어 공부!).

Advertisement for 'New Trend Public Administration'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with 'Public Administration Exam' (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M.D. Gosei' (MD고세이) with '7/15 Opening' (개강 7월 15일) and 'Exam Preparation' (시험준비).

Advertisement for 'Nongnam Gosei' (전남고세이) with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농산물품질관리사) and '5th National Public Exam' (국가공인 5회시험).